



전남우정청-화순군, 온라인 판매 맞손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화순군과 지역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순군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우체국 소품팔, 화순팍 등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촉진 △지역상품 판매 수익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기부 행사에서는 전남우정청이 20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화순군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우체국쇼핑&화순팍에 입점한 업체 9곳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8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판매 수익을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이동정 전남우정청장은 “우체국이 보유한 물류·유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 농산물의 전국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화순팍 연매출 50억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구례군청소년복지센터, 문화탐방 진행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백사인)가 19~20일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해 탐방프로그램(푸른여행)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은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많고 국립공원 탐방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푸른여행은 지리산에서 꽃피는 생활문화 탐방과 한려해상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한 해안가 마을의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탐사 여행이다.

백사인 센터장은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구례군 지원하에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스님)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운영, 심리상담서비스, 부모교육, 청소년 전화1388운영, 찾아가는 상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구례=손석봉 기자



동부경찰, 조선대 축제 안전 대책회의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조선대학교 축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동구청, 동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조선대 축제에 싸이와 KIA타이거즈 치어리더 등의 공연이 예정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진행됐다. 회의는 조선대 축제 안전 확보 및 인파 밀집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전반적인 진행사항 등의 대책을 했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조선대학교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지방 대학이 살아야 균형있는 국가 발전 가능”

광주·전남지역 총장단 간담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 참석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논의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대학으로부터’를 주제로 광주·전남지역 총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25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국립목포대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서삼석 총괄선대본부 농어민 본부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11명이 지역과 대학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대학으로부터’를 주제로 광주·전남지역 총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목포대 제공

년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지역소멸 대응 전략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대학 총장들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의 균형있

는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혁신과 미래를 이끄는 중추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들이 처한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한전, 윤리준법위→청렴윤리위 개편

올해 첫 윤리준법위 개최

한국전력은 윤리준법위원회를 ‘청렴윤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청렴과 윤리경영의 가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한전은 서울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했다.

윤리준법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 강화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인 김동철 사장과 내부 경영진 5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윤리준법위원회는 한전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간 추진계획 심의, 성과 실적 점검·평가, 향후 발전 방안 제안·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패 취약분야 진단, 청렴수준 평가 등 청렴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기능을 추가해 ‘청렴윤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올해 내부통제 종합추진계획과 윤리경영 종합추진계획을 의결하고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및 개선방안, 조직 내 리스크 예방 및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망 적기 확충, 신기술·신산업 활성화 등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렴과 윤리의 가치가 조직 전반에 뿌리 내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문화재단, ESG경영 실천 다짐

전남문화재단은 지난 2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년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청렴’을 핵심가치로 하는 ESG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재단은 이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문화다양성과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정조경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투명경영 등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 직원의 의지

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임직원의 ESG실천다짐 영상 상영과 인권경영 전시·체험부스 및 재단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ESG경영 실천을 통해 미래 세대와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재단으로 도약하겠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역 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광주대 학생들, 요리제과경연대회 수상

광주대학교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재학생들이 ‘제26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굵직한 수상 성과를 올렸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후원으로 지난 16~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2전시관에서

진행됐다.

광주대 코리아베이커리팀(박재아·정세빈·정민서 학생)은 제과제빵경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한국베이커리팀(최민수·구지민·윤태희·안명선·문현덕 학생)은 라이브경연 부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았다.

K-베이커리A팀(설대린·심수안·설강민 학생)도 제과제빵경연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 글로벌 디지털교육 선도교사단 출범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광주 글로벌 디지털교육 선도교사단(LEAD) 발대식을 개최했다.

25일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광주 글로벌 디지털교육 선도교사단’은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의 글로벌 디지털교육 협력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 전문성과 국제 협력 역량을 갖춘 초·중·고등학교 교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발대식은 △글로벌 디지털교육 비전 공유 △탄자니아 교류협력 개요 소개 △세

부 운영 방안 협의의 △참여 교사 간 네트워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선도교사단 출범을 계기로 탄자니아 교육 당국과 디지털 교육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 공유, 교사 연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탄자니아 교원들을 초청해 디지털교육·학교방문·한국 문화체험 교류 등을 실시하는 ‘교류협력구(탄자니아) 교원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최환준 기자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도박예방 교육

담양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와 담양경찰(서장 양수근)이 최근 담양읍 남초등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 법교육을 실시했다.

담양경찰서 이솔 학교전담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등 스마트폰 범죄 유형과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경찰관과 게임 및 퀴즈 코너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은 느낀 점 등을 발표했다.

서생현 회장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준법 의식 향상과 안전을 위해 보호·선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